

# 오디토륨의 室内音響性能과 建築条件

朴 棟 珑

(全北大 建築工学科 教授)

## 1. 緒論

이 10数年来 우리나라 各地에 文化活動의 中心의 場이 되는 市民文化館이나 기타 이와 類似한 오디토륨이 많이建設되어지고 있다. 이들 오디토륨이나 劇場에서는 餘韻이 좋다든가 音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가의 여러 室内音響效果에 관한 事項이 늘 話題가 되어왔다.

이와같은 室内音響環境에 관한 評価는 人間의 聽感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점이 많으나 建築音響의 分野에서는 이들 室内音響效果에 대한 主觀量을 分明히 하여 建物의 建築条件이나 室内音場의 物理条件과 対応을 求하는 試圖과 調査, 研究가 行하여져 왔다. 이 音響計劃은 技能的인 것인으로 建築家는 그 全体의 機能을 充分히 理解하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平面計劃이나 構造計劃과 같이 設計当初부터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 建築家는 너무 無計劃의으로 無責任하게 設計計劃에 임하여 온갖 부끄러우나 한편에서는 現実이다.

建築物에서의 音의 調整은 变덕스럽거나 神祕의하거나 또는 우연성에 맡겨버릴 性質의 것은 아니다. 建築音響은 嚴密한 科學이고 實用的인 技術이다. 이 音響設計에 도움이 되는 原理를 알리는 데에 本研究의 目的이 있다. 여기서 提示하는 原理에 따라 設計함으로서 生活에 妨害가 되는 騒音의 影響을 받지 않고 講演, 音樂 등에 알맞은 建物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 技能的인 音響設計는 科學의이며 美的이고 實用的인 計劃을 必要로 한다.

때문에 여기에 오디토륨이나 劇場의 室内音響性能을 中心으로 하여 評価와 建築条件의 関係 등에 대하여 基礎的인 事項에서 最近의 研究까지 包含하여 概說하고자 한다.

## 2. 室内音響效果와 評価項目

오디토륨이나 劇場에 있어서 “좋은 音”은 使用目的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 등에 따라 틀리나 이를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용목적에 알맞은 적당한 울림과 음질을 갖고 있어야 하며,

(2) 적당한 음량과 명료하게 음이 들려야 하며 그리고

(3) 반향이나 하우링과 같은 특정한 거슬리는 소리를 일으키거나 들리지 않을 것 등이다.

室內의 音響現象은 室內에서 音이 發生하였을 때 남는 “餘韻”으로 代表되고 感覺的으로도 物理的으로도 가장 明瞭하게 이를 캐치할 수 있다. 主觀的으로는 残響感이라는 말로서 나타내어지고 있으나 實際로는 여러 主觀評価尺度로 室內音響效果가 評価되고 있다.

뉴욕의 旧 필하모니홀이며 現在는 헛샤홀의 音響設計者인 베라비드는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하우스에서 좋은 音響效果를 얻기 위하여 設計上 必要한 建築 및 物理条件을 室內音響效果에 対応하는 型으로 받아들이고<sup>(1)</sup> 있으나 거기서는 親密感, 臨場感, 残響感, 다수음, 分離, 明瞭度, 扰散, 밸란스, 蝴合, 均一性 등의 17個項目으로 音響效果를 規定하고 있다.

音樂홀의 特性은 音樂 - 音響上의 主觀的인 評価의 属性에 対応하는 音響特性의 評点을 주어 尺度化하고자 하는 試圖는 다른데서 찾을 수 없으며 홀의 室内音響性能을 생각할 때 參考가 되는 표 1에 그 内容을 나타내었다. 한편 最近의 研究에서는 實際의 홀을 써서 主觀的評価實驗을 行하고 心理分析手法에 의해 室内音響效果에 관한 心理要因을 抽出하고 있다. 런던의 로얄체스터발홀 등을 사용한 호오크스氏 등의 結果<sup>(2)</sup>에서는 밸란스와 蝴合, 残響感, 親密感, 빛나는 것, 遠近感, 明瞭度 등의 要因으로 室内音響效果에 대한 滿足을 表하고 있다. 같은 方法으로 8 홀의 音響에 関한 主觀評価結果를 綜合한 에드워드氏의 研究<sup>(3)</sup>에서는 7因子까지 意味가 있는 것으로抽出하고 있으나 重要한 因子로는 홀의 容積과 残響時間에 直接關係하는 것, 相對레벨이나 初期反射音의 2,3의 量에 関係하는 것이 舉論되어지고 있다.

〈표 1〉 베라네<sup>(1)</sup>씨에 의한 음악출의 각종 음향특성의 척도의 평점  
(화살표는 설계당초의 뉴욕 펄 하모니홀의 값)

속 성	음향조건, 기타	척도와 평점																		
천밀감 또는 임장감	초기반사음의 시간지연	<p>0 10 20 40 30 40 70 60 50 t<sub>1</sub>: 시간지연 (ms) 30 23 20 0</p>																		
라이브네스	만석시의 중음역의 잔향시간	<p>평점 15 0 2 4 6 8 10 12 14 14 12 10 8 6 낭만파음악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전형적 오케스트라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고전음악 ← 0.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바로크음악 ←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p>																		
따뜻함	125Hz와 250Hz의 잔향시간의 평균치에 대한 중음역의 잔향시간의 비	<p>평점 1 3 5 7 9 11 13 15 13 11 9 0.85 0.90 0.95 1.00 1.05 1.15 1.20 1.25 1.30 1.35 1.40 1.45 (T<sub>125</sub> + T<sub>250</sub>) / 2T<sub>500-1000</sub> 저음력과 중음역의 잔향시간의 비</p>																		
직접음의 라우드네스	발코니석에 대하여는 밀의 A표참조	<p>평점 0 1 2 3 4 5 6 7 8 9 10 9 8 7 160 150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콘서트마스타로부터 청중까지의 거리 (f)</p>																		
잔향율의 라우드네스	T : T <sub>500~1000</sub> Hz (S) V : 실용적 (f <sup>3</sup> )	<p>평점 2 3 4 5 6 5 4 3 2 0 10 20 30 40 50 60 L = (T/V × 1000000)</p>																		
화 산	벽면과 천정면의 불규칙성	<p>평점 0 1 2 3 4 없음 약간 2 적당</p>																		
밸런스와 응화	오케스트라의 악기간의 밸런스	<p>평점 2 3 4 5 6 5 4 3 2 약합 나쁘지않다 4 양호</p>																		
양상분	연주자간의 각 악기 음의 들림의 종음	<p>평점 0 2 4 곧란 2 용이</p>																		
기 타	반향, 소음, 비틀립의 보정	<table border="1"> <tr> <td colspan="2">반향, 소음, 비틀립의 보정</td> <td>발코니의 직접음의 라우드네스의 보정치</td> </tr> <tr> <td>결합량</td> <td>보정치</td> <td>35ms 이하의 시간지연의 바람직한 반사음에 대하여 두발코니의 면에서</td> </tr> <tr> <td>없음</td> <td>0</td> <td>두측 벽에서</td> </tr> <tr> <td>약간</td> <td>-5</td> <td>천정에서의 강한 반사</td> </tr> <tr> <td>상당</td> <td>-10</td> <td>최대점</td> </tr> <tr> <td>약간많이</td> <td>-15~-50</td> <td>직접음의 라우드네스에 대한 최대점</td> </tr> </table> <p>+2 +4 +4 +8 10</p>	반향, 소음, 비틀립의 보정		발코니의 직접음의 라우드네스의 보정치	결합량	보정치	35ms 이하의 시간지연의 바람직한 반사음에 대하여 두발코니의 면에서	없음	0	두측 벽에서	약간	-5	천정에서의 강한 반사	상당	-10	최대점	약간많이	-15~-50	직접음의 라우드네스에 대한 최대점
반향, 소음, 비틀립의 보정		발코니의 직접음의 라우드네스의 보정치																		
결합량	보정치	35ms 이하의 시간지연의 바람직한 반사음에 대하여 두발코니의 면에서																		
없음	0	두측 벽에서																		
약간	-5	천정에서의 강한 반사																		
상당	-10	최대점																		
약간많이	-15~-50	직접음의 라우드네스에 대한 최대점																		

音의 아름다움이나 餘韻의 훌륭함 등과 音響諸元의 相関을 求한 研究도 많으나<sup>(4)~(7)</sup> 어느거나 評価를 多次元尺度法 또는 多次元因子分析法에 의해 分析하여 3~4次元으로 尺度化하고 있다. 独立한 評価因子에 関係가 많은 量은 다음에 論하는 残響時間과 直接音成分對 全에너지比, 音压分布와 伝送特性 등으로 代表되는 物理量이다.

이들의 心理·物理的要因은 모두 分離하여 抽出되고 있으나 각각 어느 韵律을 갖고 室内音響效果에 作用하고 있으므로 現在는 音量感이 評価의 中心이 되어있는것 이 외에 評価의 順序는 分明히 되어있다. 이들 餘韻의 좋고 아름다움에 대한 評価와 音響의 障碍를 주는 現象이 있다. 이 代表的인 것에 音이 두개로 分散하여 들리는反

響現象이나 規則的인 反射音群에 의해 생기는 하우링이 있다. 이들의 現象은 檢知限에 個人差가 있어도 聽感의 으로는 共通으로 認識되는 것으로 그 障害条件은 比較的 明確化되고 있다. <sup>(8)~(9)</sup>

### 3. 室内音場을 나타내는 諸量

### 3・1 残響時間

殘響感은 室외 音響效果를 左右하는 重要한 要素이나  
 이는 直接的으로는 울림 또는 餘韻의 好坏에 關係하고  
 있다. 残響時間은 残響의 大小를 나타내는 量으로 音  
 源停止后 室内의 音의 에너지密度가 定常狀態의 100万分  
 의 1 즉 60dB 減衰하기 까지의 時間을 이르고 秒로 나  
 타낸다. 室内의 音의 拡散性이 滿足스럽고 나아가 音이  
 空氣中을 伝搬할 때의 空氣吸收를 考慮하면 残響時間 T  
 는 다음의 너드슨氏의 残響式으로 求할 수 있다.

여기서  $V$  : 室容積( $m^3$ ),  $S$  : 室의 全表面積( $m^2$ ),  $\alpha$  : 室의 平均吸音率이다. 그리고  $m$ 은 平面音波가 空氣中을 単位長을 伝搬할 때의 減衰率로 周波数와 濕度의 函数이다. 이 값은 相對溫度가 60%일 때 2, 4, 8 kHz로 각각 0.002, 0.007, 0.02 程度이고 周波数가 1 kHz이 하일 때는 室容積의 順은 室에서는  $m$ 은 無視된다. 이와 같이 (1) 式에서  $m = 0$ 로 할 때의 式을 아이링의 残響式이라 부른다.

### 3・2 初期残響時間

홀이나 스튜디오 등의 残響感은 基本적으로는 残響時間에 의해 정하여지나 같은 室에서도 場所에 따라 残響感이 틀린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残響時間을 補充하는 量으로서 室內의 音의 初期의 減衰狀態를 나타내는 量이 여러가지 提案되고 있다.

初期残響時間은 그 種類의 量의 하나로서 音源停止后의 室内の 音의 에너지 密度가 定常狀態에 比하여 10~15dB 程度 減衰할 때 까지의 初期減衰時間은 残響時間으로 換算한 值을 이룬다. 一般的으로는 10dB 減衰을 抱하고 있다. 이 量은 残響時間과 比較하여 보다더 残響感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한다.<sup>14</sup>

### 3 · 3 直接音成分社 金에너지比

室内에서 直接音에서의 遲延되는 時間이 50mS 程度까지의 音은 그 以后의 音에 比하여 聽感에 미치는 効果가 틀려지므로 直接音을 補強하는 効果가 있다. 直接音成分對全에너지比는 이 現象에 基礎한 量으로 時間幅이 짧은 短音을 音源으로 한 때에 直接音에서 50ms 以内에 到來하는 音의 에너지 즉 直接音成分과 모든 音의 에너지의 比는

로 定義된다.

여기서  $P_i$ 는 瞬時音圧을 나타낸다. 이量은 音의 明瞭

度에 関係하는 量으로 普通 독일어의 明瞭를 意味하는 頭文字를 따서 D라 불리우고 있으나 拡散音場에서는 残響時間과 同意的인 関係에 있다.

### 3・4 時間重心

時間重心은  $b$ 값과 같이 室內의 初期反射音의 減衰指標의 하나로서 餘韻의 길이를 音이 減衰하는 区間의 平均時間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提案된것으로 短音을 音源으로 한 경우 瞬時音圧을  $P_i$ 라 하면 다음 式으로 나타낸다.

이 양은 室内反射音群의 時間的인 重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音의 減衰가 指数的인 경우는 残響時間을  $T$ 라 하면  $t_s = T/13.8$ 의 関係가 있다.

### 3·5 括散度

室内에서의 反射音의 拡散度를 나타내는 量으로서 室内의 어느 点에서의 音의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指向性分布나 指向性分布의 凹凸의 程度를 数值化한 量이一般的으로 쓰이고 있다. 指向拡散度는 그 種類의 量의 하나로 完全拡散場音에서 自由音場에서 0의 값을 나타내도록 다음의 式 d로 定義되고 있다.

$$m = \frac{\Delta M}{M}, \quad M = \frac{\sum E_i}{n}, \quad \Delta M = \frac{\sum |M - E_i|}{n}$$

여기서  $E_i$ 는 狹指向性 마이크로폰으로 测定한  $i$ 方向의  
에너지의 크기,  $M$ 은 그 平均值,  $\Delta M$ 은  $M$ 에 대한 偏差  
의 平均,  $m_0$ 는 自由空間에서의  $m$ 의 값이다.

指向性分布를 直接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研究가 행하여지고 있다. 等立体角마다 구멍을 뚫은 球体에 각각의 方向에서 오는 音의 에너지  $E_i$ 에 比例하는 막대를 끊어놓은 것으로 反射音의 方向性을 잘 알수 있다.

#### 4 最適殘響時間與 室容積

#### 4-1 最適殘響時間

殘響時間은 式 1에서 보는바와 같이 室容積, 室表面積 및 内裝材料의 平均吸音率 등 建築条件 그것에 의해 結정된다. 会話나 講演 등의 余韻이 너무 길면 明瞭하게 듣기 어려운 反面 音樂에서는 豊富한 殘響이 必要한 것처럼 殘響時間에는 室의 使用內容에 따라 適當한 값이 있다. 이를 最適殘響時間이라 부른다.

最適殘響時間은 室의 使用目的, 周波数, 室容積 등에 따라 틀리고 音이 좋고 나쁨에도 関係하므로 最適值에는若干의 幅이 있다. 一般的으로는 使用目的에 대한 最適殘響時間은 室容積의 합수로서 주어진다.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音樂이라도 큰 室에서는 적은 室보다 길게하고 目的別로는 教會音樂, 콘서트홀, 오페라劇場 講演을 주로하는 講堂의 順으로 적어진다. 그림 2에 代表的인 홀, 劇場의 殘響時間과 室容積의 関係를 나타내었다. 拡聲裝置의 使用을 주로한 多目的 홀에서는 하우링의 점이라든가 電氣音響裝置를 効果的으로 使用하는 点 등에

서 残響時間이 比較的 짧은편이 좋다. 經驗的으로는 그림 1에 든 너드슨氏와 헬리스氏의 音樂을 위한 推奨值보다 10~20% 程度 짧게 하는것이 適當하다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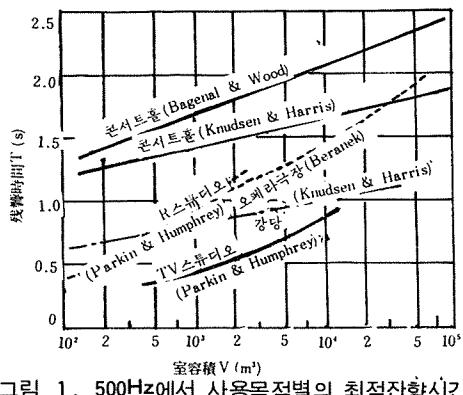


그림 1. 500Hz에서 사용목적별의 최적잔향시간

使用目的의 広範囲한 多目的 홀의 경우는 一종의 残響時間으로 모든 上演種目에 걸쳐 滿足을 주는 것은 不可能하다.

이를 解析하는 手段으로서 残響可變裝置를 設備하는 것 이 研究되고 있다. 그 한 예를 日本 高知県民文化홀의 오렌지홀<sup>(1)</sup>로 斷面図를 그림 3에, 残響時間 周波数特性 은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이 홀은 큰 홀로서 使用은 물론 舞台에 可動간막이 裝置에 의해 中規模홀이나 集会室로도 使用할 수 있도록 設計되고 있다. 이와 같은 使用目的에 따라 그때마다 残響時間이 變하는 것은 理想의이나 經濟性도 감안한 경우는 主使用目的에 맞는 残響時間을 設計하는 것이妥當하다.

周波数特性에 대하여도 많은 制限이 있으나 音樂홀에 대하여는 大略 中音域에 대하여 125Hz에서 1.5倍 이하의 比率로 低音域의 残響時間이若干 길어지는 特性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하여 広声裝置의 使用을 주로한 多目的홀에서는 平坦한 特性이 좋다고 한다. 또 古典을 주로하는 劇場 등에서는 空席일 때 1.0~1.1秒 程度의 平坦한 特性이 要望되어진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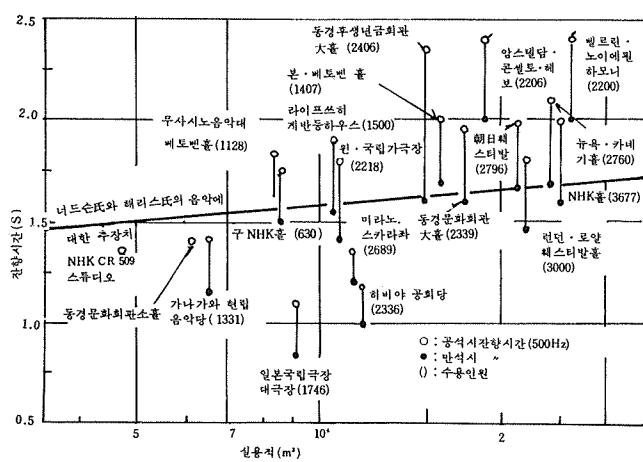


그림 2. 代表의인 홀, 극장의 종음역에서의 전향시간과 실용적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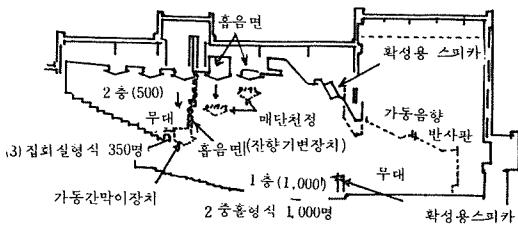


그림 3. 高知県民文化홀, 오렌지홀의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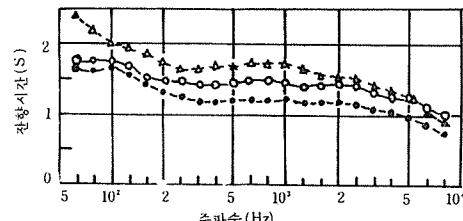


그림 4. 오렌지홀 대출형식때의 진향시간 주파수특성.

#### 4 · 2 1席당의 室容積

室容積은 홀의 残響時間의 設計에 큰 影響을 미치는 条件이다. 즉 客席 1席당의 容積이 클 수록 残響設計時의 内裝材料의 選択의 自由度가 높아 設計하기 容易하다. 1席당의 容積이  $5\text{ m}^3$  以下에서는 홀의 吸音力(室表面積  $S \times$  内裝材料의 平均吸音率  $\alpha$ )의 大部分을 客席部의 吸音力이 차지하기 때문에 内裝壁面의 吸音条件의 檢討는 거의 不可能하다. 단 같은 音樂出力を 갖는 오케스트라의 客席內의 에너지를 생각하는 경우 室容積이 増加할수록 卖位體積當의 音響에너지에는 減少하여 客席內의 音은 적어진다는 面에서 보면 아주 큰 容積을 잡을수는 없다. 残響時間도 길게 하여 卖位體積當의 音響에너지에 適當히 하기 위한 室容積으로는 1席당  $8\text{ m}^3$  程度가 가장 알맞다. 그림 5는 重要 홀의 1席당의 室容積  $v/n$ 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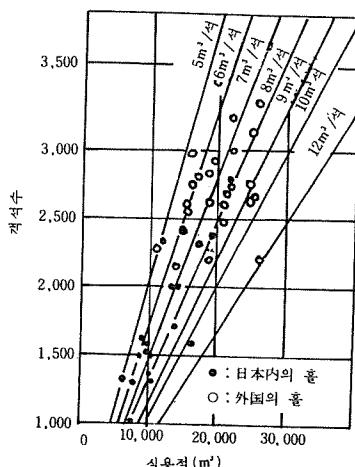


그림 5. 중요홀의 1석당의 실용적

## 5. 室內音压과 室諸元

오디토륨의 室內音響效果를 支配하는 큰 要因의 하나는 音量感에 있고<sup>(5)(6)</sup>, 受聽音压레벨에 依存하고 있다.<sup>(12)</sup>

室内에서는 音源에서의 直接音外에 壁 天井 바닥에서의 反射音이 많다. 直接音과 그들의 反射音을 包含한 音의 크기가 受聽音圧레벨 즉 音量感에 関係한다. 이는 音源의 길이나 周波数, 時間遲延에도 따르나 人間의 귀에는 直接音에 대하여 約 50ms 以内에 到來하는 反射音이 直接音을 補強하여 크게 들린다. 이 때문에 오디토륨의 設計에는 舞台에서 먼 客席에도 많은 反射音이 到來하도록 室型이 檢討되고 있다.

음의 세기는 音源에서의 距離의 自余에 反比例하여 적어지므로 이 直接音의 音压레벨  $L_d$ 는 音源自体의 파워레벨을  $L_p(0\text{dB} = 10^{-12}\text{w}$ , 普通의 오케스트리에서  $1 \sim 10\text{w}$ 程度), 音源과 受音点間의 距離를  $r$ 이라 하면 다음式으로 주어진다.

한편 室内의 定常音의 音压레벨  $L_s$ 는 音이 壁이나 天井 등에서 反射하여 室内에 充分히 拡散하고 있는 경우 室의 全表面積을  $S$ , 室의 平均吸音率을  $\alpha$ 라 하면 다음式이 주어진다.

이들 式은 音源에 가까운 어느 程度의 距離까지는 直接音의 距離減衰로 音压레벨이 定하여지나 어느 限界이 상 떨어지면 많은 反射音成分의 寄與로 音压레벨의 变化는 적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아이링氏의 残響式으로 나타낸 吸音力  $\alpha S$ 와 室容積 V, 残響時間 T의 関係를 变形하면 音压레벨  $L_{so}$ 에 比例하는 量  $-\log(\alpha S)$ 는

$-\log(\bar{\alpha}S) = \log T - \log V - \log(0.163K(\bar{\alpha})) \dots\dots(7)$

단  $K(\bar{a})$ 는 1에 가까운  $\bar{a}$ 의 函数이다. 여기서 日本의 重要홀의 室容積  $V$ 와 500Hz에서의 吸音力  $\bar{a}S$ 의 関係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면 定常狀態의 音圧レベル에 대한 室容의 影響은 크고  $30000m^3$  級 홀에서는  $10000m^3$  級 홀에 대하여  $4 \sim 5$  dB程度 低下한다. 이에 대하여 実際의 홀에서 생각할 수 있는 範囲內의 残響時間의 變化는 音圧레벨에 별로 影響을 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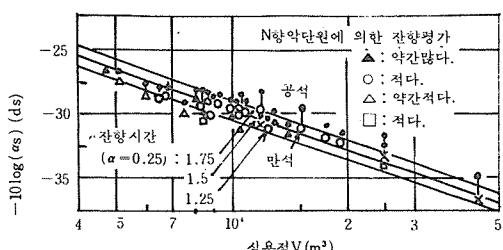


그림 6. 日本의 중요한 몇 훌의 흡음력  $\alpha S$ 와  
식용점 V의 관계.

## 6. 音響効果와 室形状

## 6 - 1 室形과 音質

오디토리움 홀 室形의 基本型으로는 長方形, 扇形, 多角形 등이 있으나 베라비氏의 音樂홀의 調査<sup>(1)</sup>에 의하면 원의 뮤직 휠라인 절이나 보스頓의 심포니홀과 같이 주로 19世紀에 세워진 長方形의 홀이 가장 評點이 많다.

한편 다른 調査에 따르면<sup>(13)</sup> 가라얀의 本拠地인 벨르린의 노이에필하모니는 場所에 따라 音質이 틀리므로 評判도 별로 좋지 않다. 이 原因의 하나는 室形의 相違를 들 수 있다. 長方形과 多角形 홀의 音質의 比較의 한 例로서 트럼펫드의 放射特性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노이에필하모니에서는 兩側 및 舞台后部의 客席에서 音質의 均衡이 매우 나쁘고 홀 全体로서는 均一한 좋은 質의 音을 얻을수 있다. 이에 대하여 長方形의 音質은 첼라인 잘은 거의 均質한 音質로 音이 伝하여지고 있는것을 알수있다.

이예는 極端의 指向性을 가진 樂器에 대한 이야기이나一般的으로 室型은 춤의 均衡感과 密接한 関係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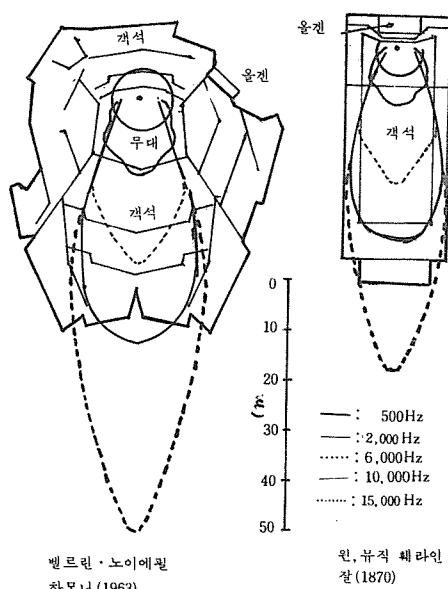


그림 7. 虎 室形에 대한 트럼펫의  
指向性의 例(13)

## 6·2 初期反射音密度

音의 明瞭性이나 親密感에 関係하는 初期反射音密度는 주로 舞台反射板과 舞台에 가까운 周壁의 位置關係, 傾斜 및 天井의 形狀과 높이에 関係한다. 一般으로 客席面積이 커지면 初期反射音密度의 희박한部分의 面積이 增加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室型의 計算機모델을 쓴 檢討結果<sup>(14)</sup>에 따르면 客席全部의 反射面条件이 같으면 扇形이라도 4角形이라도 거의 初期反射音密度는 変하지 않는다. 이는 舞台近傍, 客席全部의 形狀設計가 매우 重要한 것을 意味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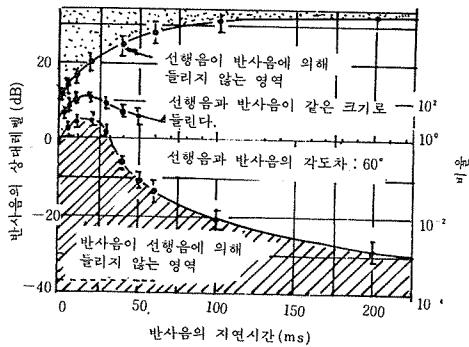


그림 8. 先行音과 反射音의 関係(15)

### 6 · 3 反射音의 方向性.

一般으로 聽感上의 方向感은 時間的으로 일찍이 到達하는先行音에 의해 支配된다. 그림 8은 그 定量的인 関係를 나타낸것으로 60°配置의 스피커에 의한先行音과 反射音과의 레벨차와 遲延時間에 대한 音이 들리는 것에 대한 関係<sup>(15)</sup>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先行音과 같은 레벨의 遲延時間이 30ms 까지의 反射音은先行音에 의해 마스크되고 反響으로서 檢知되지 않는다. 또 늦게 到來하는反射音의 레벨이先行音보다 10dB 이상 強해도先行音이 들린다. 拡声装置는 이 性質을 잘 利用한것으로 音源의 方向感을 손상함이 없이 受聽레벨을 올려 效果가 있다.

한편 反射音의 方向과 크기는 音源의 퍼지는感이나 臨場感과 密接한 関係가 있다.<sup>(16)(17)</sup> 그림 9에서 보는바와 같이 直接音에 대한 反射音方向을 左右 22.5°와 45° 方向으로 한 경우의 퍼지는感의 実驗結果<sup>(17)</sup>에 의하면兩方向의 反射音에 의한 퍼지는感이 같으려면 22.5°方向에서 오는 反射音은 45°方向에 대하여 約 2 dB 를 必要가 있다. 이와같은 点에서 보면 그림 10에 보듯이 準扇形의 多角形홀에서는 客席内에 있어서 反射音의 到來方向이 많이 틀리므로 当然 客席内에서의 퍼지는感도 틀린것이다. 이들 点에서 音樂홀에서는 反響의 低感도 包含하여 側壁에 拡散壁을 두어 反射音을 分散시키는 처치를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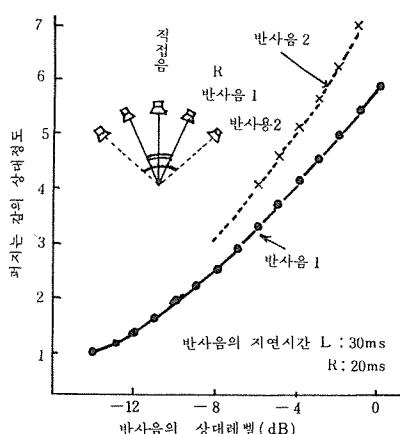


그림 9. 반사음의 상대레벨과 방향의 틀림에 대한 퍼지는 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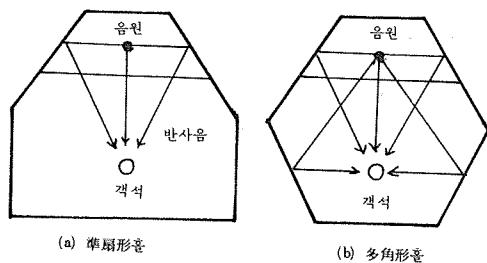


그림 10. 室型에 의한 반사음의 도래방향의 틀림例.

### 6 · 4 反響

反響은 直接音에 대하여 約 50m 이상 늦어져 強한 反射音이 있는 경우에 들린다. 實際로는 直接音의 音의 레벨, 直接音과 反射音의 레벨差, 音源의 種類등에 関係하고 있으나<sup>(8)</sup> 일반으로는 音源의 位置와 反射音의 사이의 距離가 50ms 間에 音을 伝하는 距離의  $\frac{1}{2}$  즉 8.5m 程度 이상이 되면 反響이 생긴다. 홀에서 反響의 原因이 되기 쉬운 反射音은 音源과 壁面間距離가 길어지는 后壁에서의 것으로 幅이나 室높이가 큰 홀에서는 側壁이나 天井도 反響에 관여한다. 이 때문에 側壁은 拡散處理하면서 더불어 后壁은 残響調節도 겸하여 吸音面으로 하는것이 普通이다.

〈표 2〉 代表的인 홀의 1席当의 바닥面積 m<sup>2</sup>

원 뉴 동 동	듀직체라인찰 카네기홀 NHK홀 동경문화회관대홀	0.59 0.61 0.68 0.67

### 7. 客席面의 效果

#### 7 · 1 客席椅子

客席 바닥面은 홀의 重要吸音面으로 그 大小, 構造는 홀의 残響設計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 흔히 많이 쓰이는 客席 치수는 1席当 50cm × 95cm 程度이나 通路 등 建築法上 客席幅에도 関係하고 있으므로 홀客席의 넓이를 정할 경우 通路도 包含하여 1席当의 客席 바닥面積이 0.7m<sup>2</sup> 程度가 適當하다. (표 2 참조) 한편 室內音響의 홀의 残響時間은 空席時에도 滿席時에도 變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大部分 吸音性椅子를 利用하고 있다. 여기서 吸音에 대한 椅子의 效果가 어느 程度인가를 나타내는 例로서 日本 新宿文化센타 큰 홀의 椅子 有無時 残響時間의 設計值와 實測值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椅子가 있는 경우 1,000Hz의 残響時間은 2.1秒弱에 대하여 없는 경우는 4.7秒나 된다. 이 結果에서 椅子의 吸音力を 算出하면 표 3의 값이 된다.

〈표 3〉 中程度의 吸音性椅子의 吸音力 m<sup>2</sup>

周波数 (Hz)	125	250	500	1000	2000	4000
吸音力 (m <sup>2</sup> )	0.12	0.22	0.28	0.29	0.31	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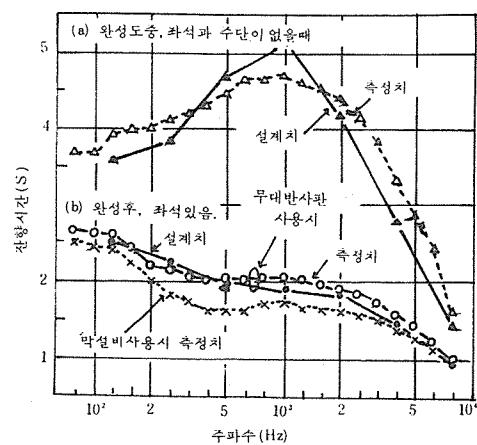


그림 11. 新宿文化センタ 大ホール의 좌석의 有無에 의한 진향시간의 比較.

## 7.2 바닥倾斜

客席面의 바닥倾斜는 視覺的, 聽覺的으로決定된다. 舞台가 잘 보이는 자리는一般的으로 소리도 잘 들리는 자리는 것에서普通은客席后部에 갈수록 바닥倾斜가 커진다. 이와같은 形을 취하면舞台에서의 直接音은 比較的 感衰가 적고客席에 到來한다. 한편 원의 뮤직 첼라인과 같이 单層 평坦바닥의 훌에서는 直接音의 感衰가 크고直接音에 대한 天井 壁에서의 反射音이 귀에 들리는比重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이 倾斜홀과 평탄홀의 큰 差異는 뒷壁에서의 反射音의 密度가 틀린것에서 즉 평탄홀이 后方의 反射音의 密度가 약간 크다. 文献 6의 研究에 따르면客席内에서의 에너지 前后比도 室内音響效果의 因子의 하나로서抽出되고 있으나 이 結果에서 보면 辺이 틀린것이, 19世紀에建設된 直方体홀의 音이一部의 훌의 音과 에너지密度가 틀린 原因이 되는것도 알수있다. 이 点에 관하여는 앞으로 많은 研究가 있어야겠다.

## 8. 結論

홀이나 劇場 등의 室内音響性能과 그것에 대하여 基礎的인 事項에서 最近의 研究의 움직임 마져 包含하여 召介하였다.

現在 室内音響效果에 관한 心理, 物理的인 性質에 대하여前述한바와 같이 어느 程度 分明히 파악되도록 되었으나 全體的으로는 아직 不充分하다. 이에 대하여도 앞으로의 研究에 期待하여야 겠다. 여기에 最近의 建築音響의 發達과 問題點들을 열거코자 한다.

오늘의 建築音響은 다음의 셋으로 나누어 論할 수 있겠다. 그 첫째는 가장 아카데믹한 立場의 것으로, 다음은 建築構造가近代化하여 온 結果 새로이 發生하는 問題를 어떻게 解決하느냐이고, 끝으로 騒音公害에 대한 建築으로서의 対策이다.

첫째의 아카데mic한 研究는 今世紀初 세빈氏에 의한 残響理論發表以来 착실히 研究되어 왔다. 現在 室内音響에 대해 世界的으로 가장 重要한 課題의 하나인 室의 物理

特性과 聽感과의 関係를 明確히 하는것이다. 그리고 디지털技術은 建築音響의 分野에서 이를 根據로, 関連理論을 發展시키므로 例로 音樂堂의 舞台에서 客席에의 音의 伝達을 3次元의 音綜圖에서 2次, 3次의 反射音까지 求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相關技術의 応用으로 아나로그計測으로는 不可能한 SN比의 改善을 갖는 것이다. 쉬레다氏에 따르면 인펄스·레스폰스에서 残響曲線을 求하는 方法을 採用하면 여지껏 騒音 등을 音源으로 하여 그 断續을 반복하며 残響曲線을 그리고 그 傾斜에서 求한 残響時間을 1回의 測定으로 求할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建築構造의 進歩로서 새로이 發生한 問題는 그 輕量化와 防音性能이 悪化한 것에 대한 対策이다. 즉 建物이 輕量化되고 기둥도 가늘고 基礎工事도 簡單 하여 建築費도 싸지고 좁은 敷地에 大容量의 오디토리움을 세울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近代建物의 工法은 防音의 立場에서 보면 두개의 巨大한 결함을 갖고 있다. 하나는 간막이壁의 輕量化에 따른 遮音性의 悪化이고 다른 하나는 鉄骨自体를 타고 伝하는 固體伝搬音의 増加이다.

끝으로 公害問題에 대한 建築的인 対策이다. 航空機騒音을 비롯하여 鉄道騒音, 道路交通騒音 등 交通으로 因한 騒音에 대하여는 먼저 音源의 低減을 꾀하여야 하나 音源에 가까운 地域에서는 이 方法으로目的을 達할 수 없다. 防音建築의 研究가 많이 行하여지나 高温多温한 여름은 매우 어려운 問題이다. 騒音公害의 根源으로 工場, 事業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機械類에서 나는 自体騒音을 줄이는것과 建物의 防音対策에 의한 外部騒音의 浸入을 막는것이 重要하고 防音工場建築의 實際가 重要的研究課題가 된다. 즉 새로운 遮音構造의 開發研究에 달려 있다 할수 있겠다. <※>

## 〈参考文献〉

- (1) L. L. Beranek; Music, acoustics and architecture, (1962) John wiley New York.
- (2) R. J. Hawks & H. Douglas; Acoustics 24, (1971)
- (3) R. M. Edwards; ibid 30, (1974)
- (4) M. R. Schroeder, D. Gottlob & K. F. Siebrase; JASA 56, (1974)
- (5) K. Yamaguchi; ibid 52, (1972)
- (6) 山本, 鈴木; 日本音響学会誌32, (1976)
- (7) 山本, 関口; 日本音響学会誌32, (1976)
- (8) 山本, 日本音響学会誌 27, (1971)
- (9) 山本, 関口; 日本建築学会論文報告書 No. 177 (1970)
- (10) M. R. Schreoder; Report of the 6th ICA, GP-6-1 (1968)
- (11) S. Furukawa & T. Yamamoto; NHK Technical Monograph No. 27 (1978)
- (12) 中村外; 日本音響学会建築音響委員会資料 AA76-15 (1976)
- (13) J. Meyer; Report of the 7th ICA, 19-A-1 (1971)
- (14) 山本外; NHK技術研究 24 (1972) (
- (15) E. G. Richardson, E. Meyer編 "Technical aspects of Sound" (1962) Elsevier, New York.
- (16) M. Barron; Journal of Sound bration 15, (1971)
- (17) 山本, 鈴木; 音響学会研究發表会講演論文集 3-6-2 (1976)